

여호수아 6 장 1-7 절

철벽방어 여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정복하는 가나안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정복 전쟁에 앞서 자신들이 가진 무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여리고 성 침략 전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예상 외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베풀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었습니다.

6 장은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라는 구절로 여리고를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여리고 성은 당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도시로 오랜 기간 안전을 보장할만큼 성읍의 군사력과 방어력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튼튼한 성벽을 과시하는 여리고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더욱 단단히 성문을 걸어 잠구어 닫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은 오히려 여리고 성 침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도저히 기적이 아니고는 여리고 침략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 침략에서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음을 말씀하십니다(2 절). 이는 여리고 성을 침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성벽을 무너뜨릴 장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6 일 동안 돌고 7 일째에는 7 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을 함락 하기 위한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합니다. 가장 먼저 무장한 군사들이 나아가고 그 다음 언약궤, 7 개의 양각 나팔을 든 7 명의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이 위치했습니다.

사실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이 훨씬 편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성을 도는 것보다 전략을 구상하고 침략과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머리로 이해될 법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준비를 할 때 우리는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 속에서 불만으로 가득한 광야 세대와 침묵과 순종으로 말씀에 순종한 2 세대를 보게 됩니다. 불평을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점차 훈련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백성들은 행렬의 앞에 위치한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군사적인 보호나 전술이 필요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행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방안이나 변화를 바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스스로의 계획이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믿음으로 여리고 성 침략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삶의 훈련에서 승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14 장 6-15 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성취될 약속을 기억함 / 성취하실 약속을 확신함

오늘 본문에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먼저 배분하고 지파별로 땅으로 가서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첫 번째로 땅을 분배 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와 헤브론 지역을 기업으로 받길 요청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요청한 이유를 살펴보려면 광야의 가네스바네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열두 명의 정탐꾼 중의 한 명으로 정탐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하사”(민 14:9)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갈렙에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9 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이 자신의 기업으로 헤브론을 원한 것은 특별히 아낙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열두 명의 정탐꾼들 중 열 명의 정탐꾼들은 헤브론의 아낙 자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정탐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한 광야의 여정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좌절하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몇십년이 흘렀지만 이를 기억하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자기의 기업으로 배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약속대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15 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15 절)라고 하며 성경은 헤브론 정복전쟁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갈렙이 어떻게 싸워서 정복했는지보다는 갈렙이 어떤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갈렙은 전쟁의 승패가 무기의 발전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 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헤브론의 아낙자손을 이길 능력이나 무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당당히 헤브론을 요청했습니다.

갈렙은 45 년 전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다 싶어서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요청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85 세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더 굳건히 붙들고 단단해졌습니다.

또한 갈렙은 자기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 아닌 백성 전체를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헤브론을 요구한 것은 그 곳에 풍성한 곡물이나 과일이 나와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곳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현실이 아닌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 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도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갈렙처럼 신앙의 연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고 단단해져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24 장 14-24 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말합니다.

곧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여호수아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아모리 족속의 우상 신들을 섬길지 택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좋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숭배하던 우상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섬길지 택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제안이 낯설게 다가올 만큼 매우 파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가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민족에게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선택의 주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택권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여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백을 여호수아가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믿겠다고 하고 후에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 큰 재앙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니 여호와를 섬길 능력이 없다면 처음부터 섬길 도전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심하거나 그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결단과 고백이 쉽게 세워지고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확고하게 각오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주어진 명령을 따르다가 환경에 따라 변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과 이에 따른 책임감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겠노라 결단하는 것이 가벼이 생각할 것이 아닌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한번 더 생각하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확고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모든 재앙과 심판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두번이나 고백합니다. 이를 듣고 여호수아는 백성들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였고 그들 스스로가 이 일을 결정한 증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호수아는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치우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라고 권면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우상 신앙이 있어서 **이방 신들을 치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기 위한 권면이었습니다.** 모든 우상을 치우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는 이 권면은 본문 첫 구절에 온전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권면과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받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과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겠노라 고백하고 뒤돌아서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 속에 생기는 우상을 제하고 온전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점검하고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사기 2 장 8-15 절

신앙의 유산

모든 큰 일을 본자들 /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수아 세대까지가 첫 번째이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왕국을 세우고 왕국의 멸망까지가 두번째, 포로로 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왕이 없는 세대를 세번째로 봅니다. 앞서 보았던 여호수아 서에서 첫번째의 역사가 마무리 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땅에 대한 약속을 여호수아 세대에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는 두번째 시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던 시기의 사건들을 담습니다. **광야 40 년을 지나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기에서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처럼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대행했던 지도자들을 이어 나타난 지도자들을 성경에서는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로 부터 건지시기 위함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각 지파들은 분배 받은 땅에서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여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침략은 이들이 그 후에 감당할 정복 전쟁을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곳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개인이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고 거민과 가축과 모든 노략물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분배 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가나안 주민들과 타협하고 함께 살기를 택했습니다. **사사 시대는 각 사사들의 이야기를 단계별로 나누어 소개하는데 각 사사가 활동하던 시대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110 세에 죽었고 그 뿐 아니라 그를 돕던 장로들의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대를 이룬 다음 이스라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간과하고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제사의 문화와 율법을 지키는 삶을 보며 자신이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한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숭배하는 여러 신들 중 하나였을 것이고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세대는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터 이끌어 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을 만큼 가나안화되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한 세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간과 하여 부지런히 가르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자연스레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은총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자신의 삶에 연결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결해야 하며 더 나아가 다음 믿음의 세대에게 알려주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음의 세대가 하나님을 깨닫고 도전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